

중앙과 주변, 소멸과 재생의 이분법을 넘어서

김효진

2017년 1월 1일 원단(元旦), 일본의 텔레비전에서는 항상 그렇듯이 현민성(県民性)을 소재로 한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각 도도부현 출신의 연예인들이 출연해 출신지 현의 특이한 사실을 알리고, 다양한 부분에서 순위를 매기며 이에 대해 갑론을박하는 프로그램으로 정월이면 항상 편성되는 인기 프로그램¹이기도 하다. 좁은 스튜디오 안에 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까지 일본의 47개 도도부현 출신의 연예인들이 서로의 출신지에 대해 자랑하고, 상대방의 지역을 장난기 넘치게 놀리며, 지방마다 인기 있는 음식과 특이한 관습에 대해 다루는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에게 일본의 지방이 여전히 '살아 있고,' 고유한 지방색과 생활 관습의 다양성이 존재하는 한편, 이 모든 차이가 일본, 일본인, 그리고 일본문화라는 커다란 틀 안에 통합되어 있는 모습을 실감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한다. 지방색, 지역색이라는 말에서 지역감정 등 부정적인 맥락을 반사적으로 떠올리게 되는 많은 한국인에게 이런 일본 '지방'의 모습은 낯선 동시에 부러운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 프로그램과 함께 방영되는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에서, 그리고 매스미디어와 인터넷의 특집기사에서 우리는 소멸하고 있는, 혹은 위기에 처해 있는 일본의 '지방'을 접하게 된다. 농산어촌의 노령화와 저출산

1 〈決定!全国47都道府県超ランキングバトル!!出身県で性格診断!?ニッポン県民性発表SP〉 등이 있다.

은 이미 기정 사실이고, 지방 소도시는 셔터거리로 불릴 정도로 역전 거리조차 대낮부터 셔터가 내려진 상점들이 가득하며 일본 제2의 도시인 오사카에서조차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위기에서 유일하게 자유로운 것은 ‘중심’인 도쿄뿐이다. 이렇게 그 양상과 내용은 다르더라도 도쿄에서 바라본 ‘지방’의 모습은 인구감소 및 경제적 활력 감소로 인한 위기다.

바로 이 ‘도쿄의 [지방에 대해 갖는] 위기감’이 2014년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마스다 히로야(増田寛也)의 『지방소멸』(地方消滅)을 산출한 동력이었을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최근 지방의 위기를 둘러싸고 심각한 논의가 진행된 것도, 사실은 도쿄가 위협하다는 인식의 확산 때문이었다는 점이다. 얼마 전 일본어권 트위터에서 화제가 되었던 “보육원 떨어졌다 일본 죽어라”라는 비판 또한, 지방에서 유출된 인구가 도쿄에 집중되면서 도쿄의 육아·복지 자원이 고갈되고 이로 인해 삶의 질이 저하되는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지방의 문제는 도쿄의 문제일 때, 도쿄라는 문맥에서 지방이 문제가 될 때야 비로소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낸다. 2010년대 다양한 매스미디어를 장식한 ‘로컬’, ‘지역 브랜드’, ‘유루케어’ 붐 또한 1980년대 일본사회에서 에도붐이 일어났던 것처럼, 사라지는 ‘지방’에 대한 위기의식이 낳은 아이러니컬한 현상일 것이다.

전후 일본사회에서, 거슬러 올라가 근대화와 도시화 이후 일본에서 지방이 언제나 문제적이고 위기에 처한 존재였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야나기타 구니오(柳田国男)의 민속학에서 드러나는 민속 상실에 대한 위기감을 비롯하여 전후 일본사회의 다양한 지역활성화 정책과 후루사토 담론 등이 바로 그 증거다. 이런 ‘지방’은 흔히 농산어촌과 동일시되었고 도시는 그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다.

이런 구도가 바뀌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지방 소도시를 덮친 불황과 그로 인한 상점가의 몰락, 나아가 ‘패스트푸드화’(미우라 아쓰시)부터였다. ‘지방’은 농산어촌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중소도시, 그리고 수도권 주변 근교까지 포괄하게 되었고 이제 그 위기는 중심인 도쿄까지 위

협하게 되었다. 마스다 보고서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방의 위기는 도쿄를 위협했을 때 비로소 진지한 고찰과 논의의 대상이 된다는 도쿄 중심성이다. 3.11 동일본대지진이 그렇게 문제가 되었던 이유 또한 도쿄와의 거리, 그리고 도쿄 전력이 후쿠시마에 위치하고 있다는 모순 때문이었다. 가장 비근한 예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1964년에 이어 2020년에 다시 개최되는 도쿄올림픽이다. 도쿄 이외의 지역이 올림픽을 유치했을 경우 겪을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2020년 다시 도쿄에서 올림픽이 개최된다는 사실이 보여주는 것은 도쿄의 미래가 일본의 미래라는 아베 정권의 암묵적인 메시지가이기도 하다.

왜 지금 ‘지방’이 문제시되는가? ‘소멸’하고 있는 지방에서뿐만 아니라 도쿄의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는 지금, 16호를 기획하면서 『일본비평』 편집위원회는 ‘지방’이라는 키워드에 주목했다. 직접적으로는 2014년 출판되어 현재까지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지방소멸’이라는 담론에서 촉발되었으나, 편집위원들은 현대 일본사회, 그 구조와 동학을 분석할 때 ‘지방’(地方)이라는 이슈가 갖는 중요성에 동의하는 한편, 이런 중요성에 비해 한국 학계에서 이 이슈에 대한 본격적인 탐구가 부족하다는 점 또한 지적했다. 예를 들면 사회학이나 인류학 등에서 개별적인 현지조사의 사례로 지방이나 지역 커뮤니티 연구는 다수 존재했으나, 이들 연구는 결국 ‘일본’이라는 국가를 재현하는 하나의 사례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았다.

일본을 균질하고 단일한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내부에 존재하는 이질성과 차이에 주목하고, 중앙과 지방의 위계를 당연시하는 대신 그 기원과 양상을 살펴보는 작업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탐구하는 대상으로서 일본을 그 근원부터 고찰하는 작업의 가장 중요한 토대라는 점에 대해 편집위원들이 동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일상생활이 영위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으로서 ‘지방’과 지역사회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여기서 새로운 질문이 제기된다. 예민한 독자라면 이 글의 첫머리에서 지금까지 편집자가 ‘지방’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많은 경우 따옴표를 붙이고 있다는 점을 눈치챈 것일 것이다. 이는 ‘지방’이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의 모호성과 폭넓음을 나타내기 위한 장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6호 특집 주제에 대한 편집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는 ‘지방’이 과연 무엇인가, 그와 유사한 단어로 일본에서 사용되는 오키니(お国), 지역(地域), 지역 커뮤니티(地域コミュニティ) 등과는 어떻게 다른가라는 점이었다. 이상의 용어는 일본의 행정, 매스미디어,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각각의 용법을 가지고 사용되고 있다. 이런 용법의 차이, 각 용어가 사용되는 맥락, 그리고 그 사용의 역사 자체가, 이미 일본사회가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해왔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연구주제라 할 것이다. 안타깝지만 이 주제에 대한 논의는 별도의 지면을 필요로 할 것이고, 특집 논문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길잡이로서 일본의 사전에서 정의하는 ‘지방’과 ‘지역’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방: (1) 국내의 한 부분의 토지

(2) 수도권 이외의 토지. 시골↔중앙「~에 전근한다」

(3) 옛 군대용어로 군 이외의 일반사회. 사마(娑婆)

지역: 구획된 토지의 구역[출전: 고지엔(広辞苑) 이와나미(岩波) 서집]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방과 지역이라는 말은 종종 섞여 쓰이지만, 지방이라는 용어가 토착적(local)인 역사와 문화를 지니고 있다는 의미를 담아 사용되는 한편, 지역(region)은 그보다 행정적인 의미를 담은 용어에 가깝다. 예를 들면 이다 야스유키(飯田泰之)의 『지역재생의 실패학』(地域再生の失敗学, 光文社新書, 2016)은 자신이 정의하는 ‘지역’을 “중심이 되는 도시와 그 도시에 통근, 통학하는 인구가 일정 이상 있는 주변지역을 합한 것”(도시고용권, 혹은 인구 10만 명 이상 시의 중심가와 그 통근권)으로 본다. 여기에는 좀 더 명확한 행정적인 뉘앙스가 엿보인다. 또한 편집자 본인의 현지조사지였던 교토에서도 ‘지역 커뮤니티’라는 말은 주민들이 생각하는 생활단위인 마치(町)와 유사한 범위를 가지고 있는 한편, 행정구역 안에서 주민들이 협동, 협력하는 체제를 가리키는 전통적인 의미의 ‘공동체’(조나이카이 町内会)와는 그 뉘

양스가 다르다. 최근 지역활성화 수단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지역 브랜드’ 전략 또한,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행정적인 맥락이 강조되는 용어라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오쿠니’라는 용어와 연속선상에서 사용되며, 역사와 문화를 지닌 단위를 의미하는 ‘지방’의 특색을 가리킬 때에는 지방성이라는 말보다 지역성이 사용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때 지방은 앞에서 살펴본 지방의 두 번째 의미, 즉 ‘수도 등 대도시에 대하여 그 이외의 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때 지방은 도시가 아닌 모든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지방’의 ‘지역성’을 말하는 것이 모순적이지 않게 되는 것이다.² 학술적 용어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 이러한 개념의 혼재는 그만큼 일본인에게 지방, 즉 자신들이 살아가는 생활공간이 중요하며 그만큼 다양한 현실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이번 특집에서는 편집위원회에서도 논쟁의 대상이 된 ‘지방’의 개념 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대신, 이를 일본인의 생활감각이 반영된 용어로서 존중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는 논문의 집필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부기해 둔다.

이런 ‘지방’ 개념의 모호함은 실제 우리가 도쿄를 벗어나 그 이외의 지역에 시선을 돌릴 때 더 강화된다. 문화인류학을 전공한 편집자는 교토에서 2년간 박사논문을 위한 필드워크를 했는데, 종종 기묘한 기분에 사로잡히곤 했다. 그 이유는 교토는 ‘수도’(중앙, 미야코)인 동시에 ‘지방’인 도시이기 때문이다. 교토를 한국의 경주에 빗대는 경우가 많지만 편집자는 그 비유는 그다지 맞지 않는다고 본다. 한국인들은 경주가 삼국을 통일한 신라와 통일신라의 수도였다는 점과 교토가 헤이안시대 이후 일본의 수도였다는 점, 그리고 과거의 역사적 유물과 사적이 많이 남아 있다는 점은 유사하다고 생각하지만 고려시대, 그리고 현대 한국의 직접적인 역사적 전단계로 간주되는

2 물론 이때 ‘지방성’이 도시(와 도시가 대표하는 도시성)와 대비되는 ‘시골스러움’을 의미한다는 사실 자체가 중앙과 지방의 위계를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조선시대(식민지시대에도 실제 식민지 조선의 중심은 경성이었으므로)에 경주는 잊혀진 도시였을 뿐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지니지 못했다.

이에 비해 교토는 막부 쇼군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상징적 존재로서의 천황이 거주하던, 즉 이른바 ‘만세일계’(万世一系)의 군주가 1200여 년에 걸쳐 존재했던 도시로, 쇼군의 도시인 에도(도쿄)에 비해 실질적인 정치적·경제적 권력에서 소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결코 그 존재감이 사라진 적은 없었다. 메이지 유신으로 천황이 정치적 중심으로 다시 대두된 것은 이런 의미에서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천황이 에도로 거처를 옮긴 이후, 교토는 이러한 역사적·문화적 중심성을 결코 포기하려 하지 않았으며 근대 이후 교토 행정과 교토 시민들의 근대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은 이런 배경 위에서 가능한 것이었다. 그리고 교토와 함께 경제적 중심지이자 근대 이후 도쿄와는 달리 행정, 현지 기업과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 근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오사카의 경우도 도쿄라는 중심과 이분법적으로 대비되는 ‘지방’이라는 범주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이는 제2의 도시인 부산도 쉽게 ‘지방’으로 간주되는 한국의 상황과 크게 대비된다. 앞에서 살펴본 지방의 두 번째 의미처럼, 한국이야말로 서울이라는 중앙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지방’이며 그 바탕에는 서울이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영역의 중심이었다는 역사적 배경이 존재한다.

이런 의미에서 ‘지방’이라는 용어는 마치 인류학에서 문화 개념이 그러한 것처럼 ‘창고 세일’(garage sale)과 같다.³ 도쿄라는 중앙을 제외한 모든 것이 지방이라는 범주 안에 편리하게 묶이지만 그 안에는 이질적인 것들이 함께 묶여 있을 때가 많다. ‘지방’을 생각할 때 흔히 떠올리는 농산어촌이 대표적인 이미지만, 수도(중앙)가 아닌 모든 것으로 묶이기에는 대도시 이외의 중소규모 도시 및 각 지역의 중심지 등은 범주가 다르다. 일본인에게 오사카, 혹은 교토가 ‘지방’이냐고 물었을 때 대부분 당혹스러워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지방’ 개념의 모호성과 함께 중심이 아닌 모든 것이 ‘지방’이고 주

3 레나토 로살도, 권숙인 옮김, 『문화와 진리』, 2000, 91쪽.

변화되는 프로세스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에서일 것이다.

여기서 잠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이 있다. 이런 언급이 일본은 지방 분권적이고 한국은 중앙집권적이었다는 주장으로 손쉽게 이어지는 것 또한 경계해야 한다는 점이다. 오사카와 교토의 사례에도 불구하고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현대 일본의 도쿄중심성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이것이 한국의 서울중심성과 매우 유사한 형태와 내용을 갖고 있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다만 분명한 차이는 일본은, 예를 들어 전통문화는 교토가 더 중심성을 지니는 것처럼, 도쿄 이외의 지방이 몇몇 특정한 장(field)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우위성은 어디까지나 지방이 도쿄에 비해 더 독특할 때, 즉 ‘표준화되고 무색투명한 도쿄’에 대비되는 ‘독특한 지방’일 때만 가능한 것⁴으로, 이는 근본적으로 도쿄중심성을 위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쿄에서 바라보는 지방의 이미지를 강화한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런 ‘지방’ 개념의 모호성과 지방의 우위성이 드러나는 장(field)의 존재가 한국의 맥락에서는 또 다른 의미에서 일본사회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낳는다. 편집자는 한국인이 일본에 대한 갖는 이미지 속에서 가장 간과되기 쉬운 맥락 중 하나가 바로 ‘지방’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한다. 이는 한국사회가 중앙집권적 전통이 강하고 서구적 의미의 봉건제를 경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즉 중앙이 여러 개일 수 있다는 점, 나아가 다양한 지방이 서로 경쟁하며 그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정치경제적 실천을 해온 역사적 체험이 부족한 한국인들에게 있어 일본의 ‘지방’은 쉽게 소거되고 단일하고 균질한 ‘일본’이라는 이미지만이 남게 된다. 이는 한국의 일본 연구가 특히 빠지기 쉬운 오류라는 것이 편집자의 생각이다.

일본 연구가 활성화된 국가 중에서 미국이나 중국은 기본적으로 각각의 자치주가 모여 연방을 이룬 국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방의 독자성이

4 레나토 로살도 『문화와 진리』 제9장 ‘보이는 문화와 보이지 않는 문화’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로살도에 따르면 우리 스스로는 ‘문화가 없는 사람들’로 보이는 반면, 우리와 다른 사람들은 문화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시민권과 문화적 가치성은 상호 역관계를 이룬다고 분석한다. 도쿄와 지방의 관계 또한 이런 관점에서 살필 수 있을 것이다.

유지되고 수도 이외의 다양한 중심이 존재한다. 바로 이런 유사점 때문에 오히려 이들에게 있어 중앙과의 긴장 속에서 생산되고 지속되는 ‘지방’의 실체는 자신들의 사회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요소가 된다. 이에 반해 한국이라는 특수한 역사적·사회적 관점에서 ‘지방’은 손쉽게 누락되고 단순히 전체로서의 일본사회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사례에 지나지 않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일본의 ‘지방’이야말로 한국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동시에, 우리가 참조할 수 있는 타국의 일본 연구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오히려 잘 다루어지지 않는 부분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민족과 국가를 동일시하는 성향이 강한 한국의 경우, 일본을 하나의 균질한 존재로 보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식민지로서 일본제국주의를 겪은 역사적 경험에 바탕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는 한국에서 민족과 국가가 갖는 의미를 일본에 덧씌우는 것으로 실제 일본 내부의 다양한 입장이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지방’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바로 한국인이 자칫 빠지기 쉬운 국가중심적 사고에 대한 반박이자 일본을 좀 더 바르게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지방’이라는 키워드로 특집을 기획하면서 가능한 한 지방에 관한 다양한 논문을 신고자 한 것 또한 편집위원회가 신경을 쓴 부분이었다. 각각의 역사와 사회문화적 맥락을 지닌 지방에는 나름의 문제와 그에 대한 대처가 존재하며, 이 점이 지방의 이질성과 다양성을 살피는 데 중요한 포인트임을 염두에 두고 이를 위해 좀 더 다양한 사례를 포괄하는 것 또한 본 특집의 목적이었다. 그 결과 오사카(이노우에 도모카쓰), 수도권인 가와사키, 가나가와(양기호), 중부인 나가노(김희정), 규슈의 가고시마(이영진) 등 다양한 지역 선정을 통해, 에도 시대 이후 ‘일본’이라는 정체성을 지녔던 지역들 중에서 특정 지방의 역사에 환원되지 않는 다양성을 담보하고자 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본 특집에서 흔히 일본의 ‘지방’으로서 떠올리는 오키나와와 홋카이도가 빠져 있다는 점이다. 이질성과 독특함이라는 기준으로는 가장 ‘지방’적인 오키나와와 홋카이도를 본 특집에서 제외한 이유는 바로 전근대로부터 이어져온 ‘일본’이라는 문화적 정체

성의 틀 속에서 이들이 여전히 ‘외부’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오키나와와 홋카이도는 인종적 차이를 보일 뿐만 아니라, 근대 이후 일본의 내부적 확장 과정에서 내부 식민지로서 편입된 지역이다. 그래서 이들은 ‘지방’이라는 관점보다도 경계(border) 혹은 변경(frontier)이라는 관점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편집위원회에서도 이를 수용하여 16호 특집에는 오키나와와 홋카이도는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형성된 일본이라는 틀 안에 포섭되어 있는 다른 지방들과 달리, 이런 ‘외부’라는 입장성(positionality)이야말로 도쿄중심성, 나아가 근대국가로서의 일본을 근본적으로 해체할 수 있는 급진적인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의 특집에 오키나와, 그리고 홋카이도가 별도의 테마로서 다루어지기를 희망한다.

이노우에 도모카쓰의 「역풍을 극복하는 법: 오사카의 가능성」으로 16호를 시작한다. 한국과 일본의 오사카에 대한 시각차야말로 ‘지방’을 보는 한국과 일본의 시각이 얼마나 다른가를 실감할 수 있는 좋은 사례다. 역사적으로 오사카는 교토와 도쿄와는 달리 한 번도 정치적 수도는 아니었지만 경제적인 저력을 바탕으로 근대에 민간과 지방정부에 의해 독자적인 발전을 이룩했고, 현재 일본 제2의 도시이자 독자적인 오사카학(大阪学)을 발전시킨 오사카의 사례는 중앙과 지방이라는 이분법에 포괄되지 않는 일본의 지방을 둘러싼 다양한 이론적·실천적 지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다.

“일본 제2의 도시이자 모도시(metropolis)로서 오사카 도시권”을 형성하고 있는 오사카를 고민하지 않고 ‘지방’이라고 부르는 한국인의 감각은 일반적인 일본인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노우에는 근세에 교토와 에도와 함께 ‘삼도’(三都) 중 하나로 불렸던 오사카의 사례를 통해 현대 일본의 도쿄중심성을 비판하는 동시에, 오사카 스스로 도쿄에 얽매어 일본이라는 틀 안에서 오리엔탈리즘적으로 주어진 오사카의 이미지를 수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흥미로운 점은 전전의 오사카, 고베, 교토를 잇는 ‘한신공업지대’가 도쿄 주변지역인 게이힌 공업지대보다 생산액이 두 배 이상 많았다는 점으로, 실제 전후 오랜 기간 양자가 비슷한 수준의 생산량을 자랑했다

는 점이다. 전시 중에 ‘중앙정부’는 도쿄를 수도로 삼고 도쿄에 모든 것을 집중시키는 정책을 집행했고, 1980년대 일본사회의 탈공업화 이후에도 도쿄 일극집중이 진행되었다.

또한 오사카는 최근 하시모토 도루 전(前) 시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정당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도쿄도와 같은 시스템을 오사카에서도 시행하고자 하는 하시모토의 전략에 대해 이노우에는 부정적이다. 오사카가 도쿄와의 비교에 집착한다면 결국 일본이라는 국가의 틀 안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으나, 실제 오사카는 일본을 벗어나서 바라본다면 메트로폴리스로서 ‘글로벌한’ 도시이기도 하다. 도쿄와 비교했을 때 오사카는 언제나 이국적이고 독특하며 ‘지방적’인 도시지만, 더 이상 도쿄를 의식하기를 멈춘다면 오사카는 그 자체로 독자적인 발전의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다는 것이 이노우에의 제안이다.

이노우에의 글은 단순히 오사카에 대한 연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오사카학의 연구성과를 집대성하고 2010년대 일본사회에서 오사카가 갖는 의미에 바탕하여 이를 한국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맥락과 언어로 ‘번역’한 결과물이다. 또한 간토와 간사이라는 구분에는 익숙해도 그 중심에 있는 오사카가 어떤 방식으로 독자적인 정체성을 유지해왔는가에 대해서는 거의 소개된 바 없는 한국의 일본 연구에도 이 논문이 긍정적인 영향을 가질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어서 양기호의 「지방의 국제화에 나타난 일본의 중앙-지방 간 관계: 지방정부의 정책 리더십 재조명」은 지방자치제가 일본의 국제화 정책에서 어떻게 기능했는가에 대해 본격적으로 고찰한 글이다. 일본의 근대화는 중앙이었던 에도의 막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찌감치 서양과 접촉했던 사쓰마번과 조슈번이 중심이 된 메이지유신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실은 일본제국주의 시대를 통해 중앙집권적 국가로 변모하면서 잊혀지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이런 지방의 선진성은 1970년대 자민당이 중심이 된 성장위주 정치에 반발하며 나타난 혁신자치체를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다. 1970년대 논의되었던 ‘지방의 시대’는 특히 지방의 국제화 분야, 즉 국제교류, 통상협력, 다

문화 공생과 이민정책의 주도적 전개에서 그 성과를 나타냈고 중앙정치를 주도했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특히 이런 사실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중앙정부에 앞서 다문화공생 정책을 선도적으로 제시한 가와사키시와 1970년대부터 이미 혁신자치체의 수장에 의해 추진된 가나가와현의 ‘민체외교’다. 한국에서는 외교정책이나 국제화정책이 중앙정부의 전유물이고 민간외교나 민간교류도 국가의 관련 정책 안에서 사고될 때가 많은 반면,⁵ 일본의 지방정부는 지방의 이해관계, 그리고 지방사회의 상황에 맞는 국제화 정책을 스스로 개발하고 이를 시행하여 오히려 중앙정부가 후발주자가 된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선진적인 정책이 지방자치체에서 먼저 고안되고 도입된 것은 바로 각각의 지역사회가 바로 ‘현장’이기 때문이다. 특히 가와사키시의 경우, 중앙정부의 이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부터 지역사회 내 정주외국인들에 대한 차별금지와 다문화공생을 지방자치체 차원에서 지원하고 중앙정부의 외국인 통제에 저항해왔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무엇보다 이는 산업공동화에 시달리는 지방의 요구와 필요성이 낳은 것으로, 삶의 터전이자 구체적인 일상생활의 공간으로서 지방이 왜, 그리고 어떻게 일본사회의 변화를 추동해왔는가를 고찰할 때 중요한 지점이기도 하다. 양기호의 논문은 지방이라는 현장에서 쌓이는 노력을 통해 중앙, 나아가 일본사회 전체를 바꾸어나가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중앙-지방정부 간의 관계에서 지방정부의 독자성과 자율성이라는 관점에서 이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본 특집의 의도를 훌륭히 전하고 있다.

이어지는 이영진의 「전적(戰跡)이라는 기억의 장: 가고시마 생협의 ‘평화활동’을 중심으로」는 아시아·태평양전쟁에서 특공대 부대가 있었고 이들이 출격하는 장소로서, 또 다른 전장이었던 가고시마에서 지난 아시아·태평양전쟁을 다시 기억하고 이를 읽는 과정을 살펴본 논문이다. 양기호의 논

5 실제 한일 간 지방자치체 간 교류나 민간교류 시 한일 간의 정치, 역사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한국은 국민감정을 이유로 교류를 일방적으로 중단할 때가 많다고 한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국가 간의 문제로 인해 그와는 관련 없는 민간교류까지 중단하는 한국의 반응이 국가주의적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문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에서 국제화, 다문화공생, 이민정책 등에서 지방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면, 이영진은 그의 논문에서 아시아·태평양전쟁에 대한 국가 주도의 기억이 지배적인 전후 일본사회에서 전쟁의 현장이었던 가고시마의 시민들이 어떻게 대항적 기억과 대안적인 역사를 밝히고 기억해왔는가를 가고시마의 전적(戰跡)을 사례로 살펴보고 있다.

전후 일본사회에서 아시아·태평양전쟁에 대한 기억은 히로시마, 나가사키 등 원폭 피해지역과 오키나와 등 실제 전투가 일어났던 지역을 중심으로 한 피해자 서사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특공을 소재로 한 영화 등이 화제가 되면서, 아시아·태평양전쟁 당시 “특공의 성지”였던 가고시마 또한 다크투어리즘(dark tourism)의 관광명소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관광프로그램은 젊은 병사들의 희생, 그리고 그로 인한 노스텔지어가 주된 내용으로 전후 일본사회의 ‘희생-초석론’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특공이 출발하는 비행장을 만들기 위해 한국인, 중국인이 징용당해왔으며, 특공의 출발지라는 이유로 수많은 공습을 받아야 했던 가고시마의 시점에서 바라보는 구체적인 특공과 전쟁의 기억은 국가적 차원에서 추상화된 일본의 고난, 그리고 잊혀진 과거를 상징하는 전쟁 체험과는 완전히 다른 과거의 모습을 제시한다는 것이 이영진의 지적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 분석하고 있는 대상은 가고시마 생협의 평화활동이다. 초기에는 반핵운동과 환경운동이 주류였던 평화활동은 1980년대 이후 가고시마 지역의 전쟁 경험으로 확대되었고, 이 과정에서 가고시마 현내의 전적 조사와 그 결과물로 발간된 일련의 자료집 제작, 그리고 평화답사를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가고시마는 특공의 현장으로서, “특공대원의 마지막 삶을 가장 근처에서 지켜보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특공에 대한 표상의 허구성을 깨달을 수 있었던 지역이기도 하다는 자각”이 이런 활동의 근거에 존재하는 것이다.

실제 평화답사는 생협회원들의 전적 조사와 그에 바탕해 축적된 자료에 기반해 이루어지는데, 전적의 관리나 답사 내용을 살펴보면 “애매한 평화주

의”이자 아마추어리즘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풀뿌리 시민단체의 여성들이 지난 오랜 세월 동안 묵묵히 수행했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전쟁 체험과 그 흔적으로서의 전적이라는,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소중한 가치가 있는 ‘원석’을 발굴해냈다”는 사실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그리고 이런 지방의 구체적인 전쟁에 대한 기억을 발굴하는 작업은 국가 중심의 ‘희생-초석론’으로 대표되는 전쟁 기억에 균열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작업이다. 나아가, 이 대안적인 기억에서도 자칫 잊혀지기 쉬운 가고시마의 특공 비행장 건설에 동원된 한국인, 중국인의 존재를 전적을 통해 기억함으로써 이것이 “비단 일본만의 것이 아닌 동아시아에 속한 것이라는 존재 구속성”을 밝힐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세 편의 논문은 일본이라는 틀을 벗어나 지방을 동아시아, 혹은 세계라는 좀 더 넓은 맥락에서 살필 필요성을 역설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오사카가 도쿄중심성을 극복하는 방법은 글로벌한 도시로서 오사카를 상상하는 것이고(이노우에), 산업공동화라는 현실에 부딪힌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대립하면서 국제화 정책과 이민정책, 민간교류를 선도하며(양기호), 가고시마의 전적을 통해 국가 주도의 전쟁 기억에 균열을 만들고 동아시아의 전쟁으로서 아시아·태평양전쟁을 기억하는(이영진) 이 작업들은 일본이라는 틀을 벗어나는 순간, 지방의 주변성이 오히려 가장 급진적이고 중심적인 위치로 탈바꿈한다는 점을 성공적으로 포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작업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중심으로서 도쿄는 언제나 편재하고 있으며, 그를 통해 우리의 상상력을 현저하게 제한한다. 김희경의 「중앙-지방의 관계동학과 지역성의 사회적 생산과 구성: 나가노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는 “현대 일본사회에서 지역성이 중앙과의 마주침 속에서 생산 및 구성되는 역동적 측면”을 나가노의 사례를 통해 중앙의 관점에서 본 지역성의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이러한 이미지 부여에 대한 지방의 저항을 근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살피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흔히 에도시대부터 내려온 것으로 알려진 일본의 ‘지방’에 대한 애착이나 현민성 등에서 보이는 지역성이 실제로는 “특정한 방식으

로 지역을 재현하려는 다양한 시도와 이에 대응하는 지역주민들 간의 대화가 끊임없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구성되는 역사적 산물”이라는 점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분석하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 현재 나가노의 상징이 된 〈시나노노쿠니〉 현가는 원래 지리교육을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창가로서, 그 주된 목적은 지역성의 강화가 아니라 “촌락사회들을 총동원 체제에 편입시켜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지역에 대한 애착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점, 또한 최근 이상적인 노령화 지역으로서 나가노에 대한 주목은 사실 전후 일본에서 국가의 의료체계에 대한 저항으로 형성된 자생적인 지역공동체에 기반한 의료 실천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 등은 도쿄로 대표되는 지역성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의 마주침을 통해 생산되며 지속적으로 변화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또한 현대 일본사회에서 “지역민들의 입장에서 도쿄로 표상되는 중앙은 경계해야 할 외부이기도 하지만, 어떻게든 끈을 이어나가야 하는, 그래서 자신들의 삶의 공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항상 의식해야만 하는 대상”이라는 사실은 중앙-지방의 관계성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지방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심정명의 「편재(遍在)하는 도쿄 혹은 비(非)도쿄: ‘지방’을 상상하는 어떤 방법」은 2000년대 일본 현대문학에서 지방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를 살피면서 도쿄의 중심성을 상대화하는 방법을 문학을 통해 모색하고 있다. 지방을 무대로 한 소설을 읽은 독자들이 공간적 배경으로서 그 지역을 상상하고 애착을 느끼게 되는 사례는 매우 많지만, 최근 일본 문학에서 ‘지방’은 이런 향토색 짙은 공간이라기보다는 ‘비’도쿄라는 맥락에서 다루어질 때가 많다. 이는 인구절벽과 극점사회라는 현대 일본의 사회문제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소설에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이 논문의 주된 분석대상은 『여기는 지루해, 데리러 와줘』, 『프린세스 도요토미』 두 편의 소설이다. 전자의 경우 패스트푸드화 이후 지방사회가 도쿄의 유행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적당히 살 수 있는 공간이 되었지만, 도쿄와의 문화적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며 여기로 충분하다는 젊은이들의 생각은 사실

상 도쿄와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는 점을 선명히 드러낸다. 따라서 “지방에 틀어박히는 젊은이들”은 지방에 대한 애향심으로 지방에 틀어박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 도쿄와 비슷한 소비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각자의 지방에 머무르게 된 것이고, 이는 도쿄중심성의 또 다른 강화이기도 하다.

『프린세스 도요토미』는 몰래 400여 년 가까이 유지되어온 ‘오사카국’을 그려낸 소설로, 이번 특집의 이노우에 도모카쓰의 논문과도 밀접하게 연결되는 주제의식을 담고 있다. 오사카도 구상의 배경을 이루고 있을 이런 오사카의 정체성에 대한 자각은 그러나 언제나 국내적이고 배타적인 것에 머무르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 글에서 사카이 다카시(酒井隆史)의 분석을 인용하면서 지적하듯이 “도쿄와 오사카를 축으로 한 중앙 대 지방이라는 오래된 구도는 종종 중앙으로서의 오사카를 소거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도쿄에 대항하는 오사카라는 언설은 오사카와 도쿄를 도시성이라는 측면에서 경쟁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중앙에 대한 지방성으로서 오사카를 이야기하는 역설을 만들게 된다”는 점은 오사카가 이미 글로벌한 도시로서 그 내부에 다양한 이질성 — 다양한 이민자와 외국인이 생활하는 공간 — 을 망각하게 한다. 만약 오사카에게 도쿄중심성을 해체할 수 있는 저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일본 내부에서 도쿄와 1 대 1로 경쟁하여 승리해서 새로운 중심이 될 때(그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본이라는 국가를 넘어서 외부와 접속하고 그를 통해 현장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방식 외에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심정명의 글은 문학에서 지방을 상상할 때 우리가 쉽게 떠올리는 향토색 짙은 소설이 아니라 ‘중앙’을 언제나 의식하는 ‘지방’이 본격적인 문학의 소재로 등장하고 있는 현대 일본의 상황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변화하는 지방의 모습을 잘 포착하고 있다 하겠다.

본 특집을 마무리하는 것은 박승현의 「‘지방소멸’과 ‘지방창생’: ‘재후’(災後)의 관점으로 본 ‘마스다 보고서’」다. 앞의 논문들이 대체적으로 각각의 학문 영역, 그리고 각각의 지역에서 지방의 문제를 천착하고 있다면 박승현의 논문은 2010년대 이후 일본의 ‘지방’ 담론을 추적하고 그 문제점과 앞으

로의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성격이 조금 다르다. 그 내용에 대한 찬반은 차치하고서라도, 2010년대 지방에 대한 담론을 사실상 이끌어왔던 ‘마스다 보고서’를 축으로 하여 이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점을 리뷰함으로써 현재 일본사회에서 ‘지방’에 대한 논점을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마스다 보고서는 지방 담론의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 이외에도, 그 내용 자체가 흥미로운 분석의 대상이다. 현재 일본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 일본의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관점에서 박승현의 논문은 『지방소멸』을 꼼꼼히 읽고 이것이 그려내는 모습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박승현에 따르면, “이전의 논의들에서 지방살리기의 문제가 ‘지방’에 국한되고, ‘중앙’은 흔들림없이 빛나는 존재라 한다면, 마스다 보고서의 도교는 인구의 블랙홀이 될 수 있는 중앙이며, 재해의 위험마저 동반한 ‘중앙’이다. 또한 ‘한계집락’의 논의가 해당지역이 안고 있는 고령화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지방소멸’의 핵심은 지방에서 중앙으로의 ‘인구이동’이 일본 전역의 인구급감을 초래한다는 문제의식이다. 이 때문에 중앙과 지방은 공생을 피해야 할 관계에 놓이게 된다.” 문제는 이런 주장의 배경에 일본 정부의 인구관리라는 전시기에서 이어지는 정책이 존재하고, 그 대안으로서 중핵도시를 논하지만 결국 이를 결정하는 데는 ‘선택과 배제’의 논리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마스다 보고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보고서가 탄생한 배경에 후쿠시마, 즉 3.11 동일본대지진이 존재하지만 실제 보고서에는 후쿠시마의 존재가 누락되어 있다는 박승현의 날카로운 지적은 ‘지방’의 위기에 대한 중앙의 관점이 지닌 심각한 문제점을 폭로한다. 무엇보다 마스다 보고서가 만들어진 일본창성회의는 실제로는 동일본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 동북지방의 창생을 일본창생의 계기로 삼자는 취지로 동일본대지진 직후인 2011년 5월에 발족한 단체로, “마스다 보고서와 이후 일련의 인구정책들은 ‘전후’에 대한 성찰을 결여하고 ‘재후’라고 하는 새로운 국면을 외면하고 있

다는 점에서 근원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는 치명적인 결함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번역, 소개된 『지방소멸』의 독해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지점들이라 하겠다.

특집 논문의 소개와 함께 16호의 연구논단에 게재된 논문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연구논단의 첫 글은 조정민의 「금기에 대한 반기, 전후 오키나와와 천황의 조우: 메도루마 슌의 「평화거리로 불리는 길을 걸으며」를 중심으로」인데, ‘경계’의 지역이자 현재는 일본에 편입되었으나 예외적인 지역인 전후 오키나와 문학의 천황에 대한 대응을 전후 일본문학과 대비해 고찰하고 있다.

정진성의 「재일동포 민족학교: 분단과 탈식민의 역사」는 일본의 민족학교를 역사적으로 고찰하면서 일본의 차별뿐만 아니라 한국과 북한의 분단 역사에 의해 이중고를 겪어온 이들 민족학교가 최근 변화하는 정세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를 상세히 살피고 있다.

이 두 편의 논문이 현대 일본의 마이너리티로서 오키나와 문학과 재일 조선/코리안의 민족학교를 다루고 있는 한편, 나머지 두 편의 논문은 근대 일본과 식민지 조선에서 지식인의 변모를 다루고 있다.

이세봄의 「「경천애인설」에 나타난 나카무라 마사나오의 사상적 전환」은 메이지 초기 지식인인 나카무라 마사나오가 유학과 서양문명의 기반인 기독교의 공통분모로서 ‘경천애인설’에 도달하게 된 과정과 그에 대한 평가를 논하고 있다.

이은지의 「다이쇼기 ‘개인’ 담론의 지속가능한 발전: 염상섭 초기 문학에 나타난 낭만적 아이러니」는 한국 근대문학의 대표적인 소설가인 염상섭의 초기 문학에서 일본의 낭만주의 영향을 밝히고, 이를 염상섭이 어떻게 수용하여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했는가를 상세히 분석하고 있다. 귀한 연구 성과를 기고해주신 투고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인류학자 안나 칭(Anna Tsing)은 ‘주변’이 “사회적 범주들의 불안정성 (instability)’을 드러내는” 곳이며, 상충하는 담론들이 겹쳐지면서 앞뒤가 맞지 않는 여러 종류의 의미-생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주변성의 속성이라 제

규정한다. 주변에서 [상상된] 중심과 그것이 주조해낸 사회적 범주들 및 담론들은 위협받지만 여전히 작동하며, 작동하지만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낳는다. 그렇다면 관습적인 의미에서 중심으로 간주되었던 장소 역시 언제나 주변/주변성의 사례가 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중심지 내에 또 다른 중심-주변의 쌍이 등장하게 된다.⁶

특집에서 살펴본 논문들이 보여주듯이, ‘지방’은 일본이라는 틀 안에서 머무르는 한 주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중앙과 지방이라는 구도를 역전시키는 것만으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중앙에 대항하는 지방이 그 독특성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그 독특성을 부여한 중앙의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은 은폐되고 그 결과 지방의 주변성은 더 강화될 뿐이다. 예를 들어 오사카가 중앙에 대한 지방성으로 오사카를 특화한다면 이는 보편성으로서 도시성을 약화시키고 내부의 이질성을 소거하는 과정이 된다. 현민성이나 지역 브랜딩이 가지는 위험성도 여기에 있다. 특집 논문의 필자들이 일본이라는 틀을 넘어서는 동아시아의 맥락, 혹은 글로벌한 맥락 속에서 지방을 바라볼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이유 또한 여기에 있다.

이와 더불어 기억해야 할 것은 지방은 언제나 현장이라는 점이다. 사람들의 생활감각에 바탕한 일상생활이 실시간으로 영위되는 공간으로서 현장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낳으며 그것이 변화를 추동한다. 이를 포함하려는 중앙에 대항하여 지방의 목소리를 발신하는 힘이 아직 일본의 ‘지방’에는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본 특집의 결론이다. 나아가 이런 시각을 통해 우리는 중심 안의 주변, 도쿄 안의 ‘지방’을 찾을 수 있고, 그 중심이 실상은 불안정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지방소멸이라는 위기 담론에 대항하여 중앙의 오리엔탈리즘이 반영된 지역성에 대한 추구보다도 현장으로서 지방이 갖는 중심성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6 안승택·이경목, 「기술과 사회, 중심과 주변을 함께 보기: 역사인류학으로부터의 탐색」, 『역사와 현실』 98, 한국역사연구회, 2015에서 재인용.